

관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 개산대제

## 개산 10년, 1000년 대계를 세우다



부산 경기민요전수소의 경기소리 공연 모습.

적도의 뜨거운 태양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부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2차대전의 상흔이 공존하는 섬, 남태평양 관. 1997년 KAL기 추락사건과 인근지역 쓰나미 참사,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병 등 여행 자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이곳의 경제불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불자 교민들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준 보타산 낙가사(주지 도휘)가 개산 10주년을 맞았다.

관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는 개산 10주년을 맞아 7월 17~19일 3일간 개산대제를 개최하고, 더불어 술한 전경으로 회생된 유주무흔 영가들을 천도하는 수륙대제 및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7월 17일 저녁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는 종호 스님, 월봉 스님, 정만 스님 등의 증명이에 한국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엄수됐다.

개산일인 18일 오전 10시 낙가사 도량에서 10분 거리의 아산비치에서 현지 교민 및 한국에서 동참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가사 10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1부 기림식은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및 주지스님 인사,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신도회장 봉행사, 초대신도회장 및 한인회장 축사, 종호 스님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낙가사 신도회 김보현화 회장은 봉행사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 관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힌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현



### 7월 17~19일 수륙대제 생전예수재 등 봉행

### ‘무주상보시 실천과 봉사로 정진할 것’ 다짐

신적인 신도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며 이상(我相)에 머물지 않는 봉사와 신행생활로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신현국 초대신도회장은 “오늘의 가슴 벅찬 10주년 기념법회가 있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서로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변함없이 낙가사를 지켜주시 주지 도휘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축하했다.

이날 저녁,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벌머위를 몰아낸 낙가

종호 스님의 법문에 앞서 합창하는 월봉·정만·도휘 스님(왼쪽부터)과 낙가사 신도들.

사 야외특설무대에서는 한터 민족민속음악 연구회(단장 강성인)의 축원무, 부산 경기민요전수소(소장 김선옥)의 경기소리, 교방전통 김해예술단(단장 최경옥)의 전통무용 살풀이 등 다채로운 국악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낙가사의 개산 10주년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관 전체 인구의 70%는 가톨릭이고, 한국 교회는 20여 곳에 이르지만, 불교 사찰은 대만 사찰 1곳과 한국 사찰인 낙가사 등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힘들게 사는 우리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사찰로서 법등(法燈)을 밝혀왔기에 10년의 역사가 더욱 뜻깊다.

낙가사에서 처음 한국불교를 접한 현지인 폴 언탈란(법명 선재)씨는 “왜래 이웃종교인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곳에 와서 주지스님께서 <지장경>을 설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좋아 매일 낙가사를 찾아와 108배를 드리며 불법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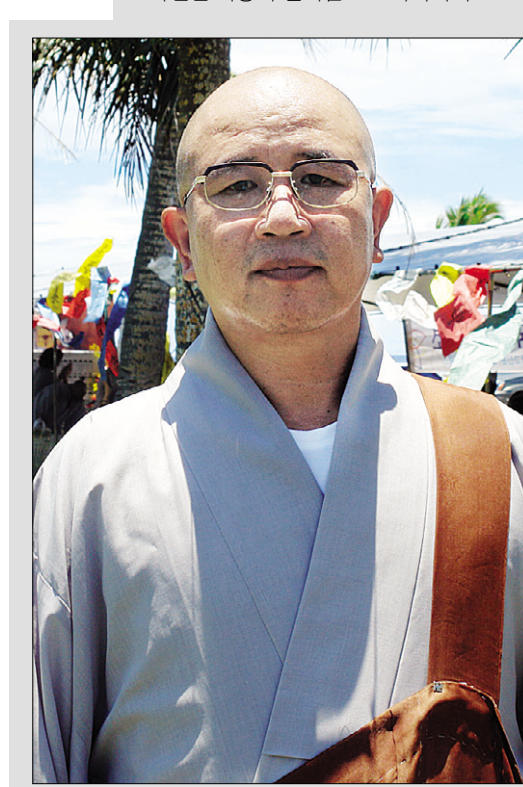
관 한인회 전상대 회장은 “지금도 주위에서 개종하라는 권유를 참 많이 받지만, 수많은 한국교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정신적 귀의처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관 낙가사-오세훈 부산지사장

### “불법 배우는 가람 만들 터”

낙가사 주지 도휘 스님

관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의 10년이 있기까지 주지 도휘 스님과 신도들은 험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도휘 스님(사진)이 그리는 낙가사의 청사진은 희망의 환희심으로 가득하다.



도휘 스님은 “10년 전 여름의 어느 좋은 날, 이곳 관에서 뜻있는 불자들이 함께 신심을 모아, 부처님 법음으로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청정한 도량 불사의 원력을 처음 세웠다”고 회상했다.

오늘의 낙가사가 장엄한 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발원을 한지 어느덧 10년. 주지스님의 감회는 남다르다. 스님은 “우리 낙가사 대중은 좁게는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자비를 실천해야 하지만, 넓게는 고국을 떠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관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 인류에 이르도록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공화 인근에 새로운 사찰 부지를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전통한국사찰 방식으로 도량불사에 들어간다”면서 “우리 낙가사는 1000년의 대계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가람 건립이란 대박불사를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스님은 “지난 10년이 신심을 고취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참선과 염불, 주력 경건 등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한 도량이 될 것이며,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

## 불경 금책, 금명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사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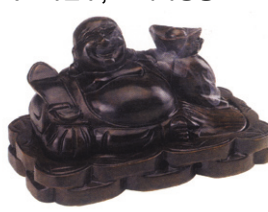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거리가 지평하여  
반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제) 26 × 16 × 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복판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항  
이 행어쳐 나와 예쁩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  
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열침의 효능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듬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듬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듬(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